

종합·해설

4·25 국회의원 재보선·대선 여론조사

광주일보는 지난 11일 조선일보, 대전일보, 경인일보 등 3개 일간지와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대선 여론의 가능자가 될 4·25 국회의원 보선과 대선에 관한 정치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화설문조사는 무안·신안과 경기 화성 각

602명, 대전 서울은 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0%P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가운데 지역별 유권자수에 비례해 전화번호부를 이용 무작위 추출했다. 조사 결과를 분석, 정리한다.

4·25 광주·전남 재·보선 현장

목메인 이희호 여사 "우리 흥업을 국회로"

본격 유세전 돌입

○무안·신안 국회의원을 비롯,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6명을 뽑는 4·25 재·보선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12일 시작했다. 이날 각 당 지도부와 후보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전을 펼치는 등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각 당은 이번 재·보선이 연말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가능하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뿐 아니라 범여권의 경우 통합 신당의 주도권을 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칠 태세여서 어느 재·보선보다 열띤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목포서 사무소 개소

○무안·신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홍업 후보는 12일 오전과 오후 목포(신안연락사무소)와 무안에서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상천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뿐만 아니라 모친인 이희호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인 박지원씨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희호 여사는 개소식에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뿌리 내리기 위해 제 남편과 가족은 많은 노력을 했다. 우리 아들 흥업이도 많은 고생을 했다"며 "반드시 흥업을 당선시켜 국회로 보내달라. 흥업이 승리해야 민주당이 승리한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개소식을 겸한 지원 유세에는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과 윤호중 의원, 통합신당모임 이강래 의원과 전병헌 의원까지 참석, 김씨가 사실상의 범여권 후보임을 실감케 했다.

무소속 이재현 후보는 이날 오후 무안을 성남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한나라당 강성만 후보도 이재우 최고위원과 황우여 사무총장의 지원 아래 무안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뒤 본격 유세에 돌입했다.

민주 남구 시의원 후보 못내

○4·25 재·보선을 통해 통합 신당 주도권을 확보하려던 민주당이 광주지역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인 남구 제1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공천자를 교체하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후보를 내지 못해 지역 정가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당초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선문 후보가 등록한 뒤 도덕성 논란이 제기돼 중앙당이 김 후보를 제명하고 강성후 후보를 재공천했으나, 선관위가 김 후보를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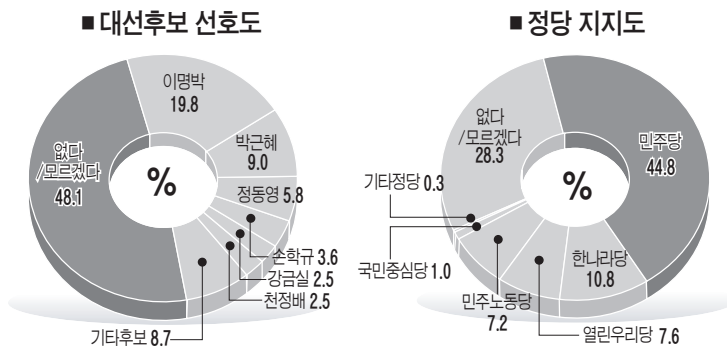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등록기간에 정당의 사유로 후보를 교체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민주당 후보 등록이 무효화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부실한 후보 선정시스템과 선거법 규정 하나 잘 모르는 중앙당 및 광주시 당의 총체적 무능에서 비롯된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자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신안 김홍업 신안서, 이재현 무안서 앞서

"지지후보 없다" 36.5%... 결과 예측 불허

대선후보 지지 이명박 20%·박근혜 9%



물론 결과 80.8%가 '꼭 하겠다' '아마 할 것이다'라고 응답해 이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50~60대의 경우 90% 이상이 '투표 하겠다'고 답변했고, 지지후보별로는 김 후보 지지층의 94.5%, 이 후보 지지층의 89.6%가 투표에 참여할 의향을 밝혀 두 후보 지지층의 응집력을 반영했다.

○대선 후보 및 범여권 후보 선호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 19.8%를 얻어 1위를 달렸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9.0%,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5.8%,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3.6%를 각각 얻었다. 또 강금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각 2.5%, 한병숙 전 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 1.9%,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1.8%,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1.3%,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1.2%,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0.6% 순이었다.

여권 후보 선호도를 묻는 별도의 항목에서는 정동영 12.1%, 손학규 9.1%, 강금실 7.4%, 한병숙·천정배 각 4.4%, 유시민 3.5%, 김근태 3.0%, 정운찬 1.7%로 나타났다.

'대선에서 호남권을 대표하는 후보가 출마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55.8%가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30.9%는 '지지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정당지지도 및 범여권 신당 통합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민주당 전폭적으로 강세를 보여준 민주당이 44.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한나라당이 10.8%로 2위를 차지, 7.6%에 그친 열린우리당을 제쳐 민심 이반을 실감케했다. 민주노동당은 7.

2%, 국민중심당은 1.0%, 기타 정당은 0.3%에 머물렀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국회의원들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이 한나라당에 맞서 하나의 범여권 신당으로 통합돼

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4%가 '그렇다', 34.5%는 '통합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응답해 범여권 신당 통합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2일 무안을 성남리에서 열린 민주당 김홍업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김 후보의 어머니 이희호(맨 왼쪽) 여사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만세를 외치고 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kwangju.co.kr

대전 서울 심대평-이재선 오차범위내 접전

〈국종당〉 〈한나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전 서울에는 한나라당 이재선, 국민중심당 심대평, 한국사회당 김윤기 후보 등 3명이 출마한 가운데 심 후보와 이 후보간 한치의 양보없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후보는 42.9%의 지지를 얻어 이 후보(39.9%)를 따돌리고 선두를 달렸으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3%P에 불과했다. 김 후보는 2.3%에 그쳤다.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54.9%로 압도적으

로 높았고, 국민중심당 9.9%, 열린우리당 9.7%, 민주노동당 7.3% 순이었다. 여권 대선 후보 선호도에선 무안·신안과 달리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4.5%로 1위를 차지했고 강금실 11.4%, 정동영 8.0%, 한병숙 6.2% 순이었다.

범여권 신당 통합에 대해서는 64.6%가 '통합되지 않아도 상관 없다'고 응답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인가'라는 질문에는 66.7%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 화성 한나라 고희선 후보 독주 뚜렷

한나라당 고희선 후보의 독주현상이 뚜렷했다. 고 후보는 37.8%의 지지를 얻어 열린우리당 박봉현 후보(16.4%)와 민주노동당 장명구 후보(12.1%)를 여유있게 앞섰다. 정당지지도 역시 한나라당이 52.3%로 선두를 달렸다. 민주노동당은 14.9%, 열린우리당은 14.0%였다.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41.1%,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22.4%, 손학규 전 경기지사 6.2% 순으로 대전 서울과 상위 선

후 후보의 순서가 같았다. 여권 대선 후보 선호도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6.1%로 가장 높았고 정동영 8.4%, 강금실 8.2%, 한병숙 7.1%, 김근태 4.6% 등이었다. 범여권 신당 통합에 대해서는 68.0%가 '통합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응답해 '통합돼야 한다'(17.6%)는 의견 보다 훨씬 많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희호 여사

동신대서 名博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는 24일 동신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 동신대는 12일 이희호 여사가 오랜 세월 인권지도자로서 민주주의의 수호와 양성 평등 실현을 물론, 우리 사회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등 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로 했다고 밝혔다.

동신대는 24일 오전 11시 대학 내 국제회의장에서 김필식 이사장, 최인기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학위수여식을 열고 정기연 총장이 이희호 여사에게 학위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희호 여사는 학위수여식이 끝난 뒤 '다문화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1시간 가량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질의 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황태조기자 hwangtae@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5월 1일 첫진도(주간반,아간반) •재직자 무료수강생 아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실력있는 국제 영어교사자격 인증과정 ALU- TESOL 학사 석사 박사. '취업'에 불안을 느끼세요? '영어전문가'가 되어 당당한 영어교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TESOL 학사/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하십시오. (총 소요기간 1년) www.aluniversity.com 입학문의: 0505-616-1515 president@southbay.ac American Liberty University 캐나다 자메이카 Sophy Bay 캠퍼스 주관. TESOL(영어교수법)의 학위과정을 진가를 느끼세요. <주의 요망!> 흔히 시중에서 TESOL Certificate과정, 수료증 과정이라는 것은 석사학위과정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공부하고 ALU-TESOL 학위를 취득하십시오. American Liberty 대학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박사학위 등록이 되는 정규대학입니다.

경찰시험 합격비법 공개! 경찰시험에 합격을 좌우하는 열쇠는 '경찰영어'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영어! 2개월이면 말끔하게 마무리 됩니다. 동아경찰영어 필승 합격반 모집 중! 각 분야 막강 강사진 경찰영어 강인만큼은 자신만만! 먼저 입주일 들어보고 수강등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료강연은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경찰영어 강의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7:20~8:40 •오후 4:40~6:10 •오후 7:20~8:50 새로운 건물로 원차 이전 확정! 예종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T.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제3기] •개강일시 : 4. 19(목) 09:30 •모집기간 : 3. 20(화)~4. 19(목) •수업기간 : 4월~8월(4개월 15주) •수강료 : 210,000.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수료후 특전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 수료증 수여(총장명명)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해당과목)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각급학교 특기적성교육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TEL(062)950-3584, 3585, HP.011-614-4160

당신도 한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한의대. www.southbay.co.kr ☎ 0505-313-1515

토익990점 만점 대특강 토마토 해커스 실전990 TOEIC강좌 퍼레이드! 동아외국어학원은 오로지 토익 만점(990점)만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탄탄한 TOEIC강좌로 소문난 동아외국어에서 만점 합격의 기쁨을 누리세요. 호화막강 강사진! 열강! 열강! TESOL박사 최갑원장 토익만점 11회 조성훈 교수 토익 분석 전문가 차준오 교수 새로운 건물로 원차 이전 확정! 예종의 거리 한복판 사거리 T. 222-6253 www.donga.tv 동아외국어학원